

# 불·유·도 융합, 불교의 중국토착화 이끈 선구자

## 중국불교의 거사들 <2> 모용(牟融) 거사

중국에 불교가 처음 전래됐을 때, 중국인들은 상당한 거부감을 가졌다. 문화적 풍토가 다른 것도 원인이었지만, 그보다는 지형적인 요소로부터 형성된 중국인의 우월 성향이 더욱 큰 요인이었다.

중국은 대륙 한 가운데에서 황하와 양자강을 끼고 농경문화를 일으킨 까닭에 화려한 문화를 바탕으로 대체로 인문적 성향을 갖았다. 이는 주변국들이 수렵을 중심으로 한 것과는 문화적으로 상당히 대비되는 것으로 중국인에게 깊은 우월감을 갖게 했다. 특히 중요한 중원을 노리는 주변국들 침략에 중국인들은 일종의 정신적인 방어막을 형성하게 됐다. '아하지방(虞夏之防)'으로 표현되는 이것은 '오랑캐(夷)'의 저급한 문화가 '중국민족(夏)'의 우월한 문화를 망친다는 의식으로 이미 선진(先秦)시기에 뚜렷이 형성되어 중국인들이 주변국들의 침략에 대항하는데 정신적인 무장이 됐다.

더욱이 전국시기에 출현한 '제자백가(諸子百家)'의 다양한 사상들을 거처며 중국에는 점차 '유(儒)·

계 소개돼 있을 뿐이다. 모용 거사의 사상은 그가 서술한 <모자이후론(牟子理惑論)>에서 알 수 있다. 그의 행적이 비교적 자세히 소개된 것은 승우(僧祐)의 <홍명집(洪明集)> 제1권에 승우가 쓴 서문이다. <홍명집>을 바탕으로 그의 생애를 소개한다.

모용 거사는 어려서부터 제자백가 전적들을 두루 섭렵했다. 병법(兵法)과 신선방술(神仙方術)을 싫어했지만 그와 관련된 서적들도 모두 읽었다. 특히 노자의 글을 깊이 연구했다. 내포하고 있는 오묘한 도리를 마치 술이나 물 마시듯 하고, 오경(五經)을 거문고나 피리 다루는 것과 같이 했다. 본래 거사는 교주(交州) 장오군(蒼梧郡) 출신인데, 영제가 붕어하고 '황건적의 난' 등의 전란이 일어나자 교주(交趾, 지금 베트남 북부)로 모진을 모시고 피난하였다가 26세에 다시 장오군으로 돌아와 결혼했다.

당시 신선방술이 크게 유행하여 수많은 학자들이 그를 논하여 거사는 항상 오경(五經)을 인용해 그들을 비판했다. 어떤 도사(道士)도 그와 대적하지 못했



그림 · 김홍인

### 불교 교리 中 전통사상으로 설명하는 '격의불교' 개혁

### 중국인들에게 외래종교에 대한 자연스러운 접근 유도

도(道) 양가를 중심으로 하는 황학이 형성됐다. 그에 따라 불교가 중국 땅에 전파되며 점차 확대돼 갈 때, 유·도 양가의 사상적 반발이 아주 강렬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들은 끊임없이 불교를 "고향으로 쫓아 보내고[放歸桑梓]" 혹은 "천축으로 돌려 보내기[退回天竺]"를 기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교가 본질적으로 유·도 양가와 다르지 않고, 더욱 뛰어난 것임을 밝혀 불교를 널리 퍼지게 한 이가 바로 모용 거사다.

거사의 정확한 생몰연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동한(東漢) 말기 영제(靈帝: 159~189)로부터 마지막 황제인 헌제(獻帝: 181~234) 때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불교사에서 모용은 현존하는 여러 자료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했던 최초의 거사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팽제청(彭際淸)의 <거사전(居士傳)>[전56권] 제1권 첫머리에 '모용거사전'을 실고 있고, 또한 심태(心泰)의 <불법금광편(佛法金湯編)> 제1권에도 수록돼 있다. 그러나 이 전적들에는 그의 행적이 간략하

다. 이 소문을 듣고 태수가 그에게 서리(虜史) 편지를 주었지만, 학문에 뜻을 둔 거사는 사의를 표하고 편지를 물려냈다. 그러나 당시 각 주(州)마다 언어와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않은 까닭에 그에게 형주(邢州)에 사신으로 가줄 것을 청한 태수의 뜻을 거절하지 못하고 임무를 맡게 됐다. 형주에서 거사는 그곳 주목(州牧)이 신선방술에 빠져 심한 질병에 걸린 것을 보고 신선방술에 대한 폐해를 느끼게 되었다. 그러던 중 천하가 전란에 휩싸이고 모진이 세상을 떠나자 그 동안 자신이 겪은 학문과 세상에 커다란 희의를 품게 됐다. 이러한 인연은 거사를 불교에 귀의하게 했다.

그는 불법에 심취해 세간 학문들을 비판했다. 많은 사람들이 거사를 가리켜 유가를 배신했다고 비난했다. 그에 따라 거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모자이후론>을 찬술하게 된다.

<이후론>은 미혹을 다스린다는 뜻으로 본래는 <차후론(治惑論)>이었다. 당(唐) 고종(高宗)의 휘(諱)인 '치(治)'를 피하여 <이후론>으로 고쳤다. <이후

론>은 모두 37편. 각 편은 ▲부처님의 명칭, 불도(佛道), 윤회, 보시의 공덕 등과 같은 단순한 용어 설명 ▲계율을 지키는 생활은 즐거움이 없는 것인가 ▲부모형제를 버리고 출가한 승려들은 불효하는 것이 아닌가 ▲도교의 가르침과 불교의 가르침이 같은 것인가 ▲도(道)는 무위(無爲)라는 점에서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들과 그에 대한 모용 거사의 답으로 이뤄져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질문과 답변들은 초보이다. <이후론>이 찬술됐던 동안 말 일반대중의 불교 인식을 감안하면 수록된 37개 질문은 모두 당시 절실하게 필요했던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거사가 서술한 답변은 비록 거칠지만 이후 중국불교에서 제

시하는 진제와 크게 어긋나는 부분이 없다. 거사의 불교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정확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다.

<이후론>은 불교 교의를 불교적 용어와 논리가 아닌 유·도 등의 중국전통 사상과 관습으로 설명하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부처님(佛)' 명칭에 대한 설명을 '부처님은 시호(諡號)이다. 마치 삼황오제(三皇五帝)와 같이 신성한 것이다. 부처님은 바로 도덕의 원조이고, 신명(神明)의 시조이며 모범이고, 부처님은 깨달음을 말한단다'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다시 이어서 '신체를 변화시키기를 혹은 나투고 혹은 사라지며, 크고 작게 할 수 있고, 등글거나 모나게도

할 수 있으며, 숨기거나 드러낼 수 있고, 불속을 걸어 도 타지 않으며, 칼날을 밟아도 상하지 않고, 더러운 곳에 있어도 오염되지 않는다. 재난에 빠져도 다치지 않으며, 하늘을 날고, 앉으면 빛을 발하기 때문에 부처님이라고 칭한다'라고 적고 있다. 이러한 설명은 당시 신선방술이 유행했기 때문에 나타났다. 신선방술에서는 '벽곡(辟穀)' 등 수련을 통해 알 구질의 신통한 현상을 몸으로 체현할 수 있다고 하고, 심지어는 '불사(不死)'의 단계에 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후론>의 뒷부분에서 무엇 때문인지 불전이 아닌 <시경(詩經)> <서경(書經)> 같은 중국의 전통전적을 인용해 담고 있다. 이에 대한 모용 거사의 답변이 재미있다. '목마른 자는 강을 기다렸다 마시지 않고, 굶주린 자는 커다란 창고를 기다렸다 먹지 않는다. 도는 지혜로운 자를 위해 설하고, 변설은 말 잘하는 사람을 위해 통하고, 글은 깨달은 자를 위해 전하고, 일은 식견이 있는 자를 위해 밝힌다. 나는 그대가 그 뜻(중국전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인용했다. 만일 불경의 말로 설명해 무위(無爲)의 요체를 이야기한다면, 이는 장님에게 오색(五色)을 설명하고, 귀머거리들 위해 오음(五音)을 연주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이후론>의 친술의도를 밝힌 것이다.

다시 말해 불교의 진리는 너무 깊어 설명해도 납득시킬 수 없으니 가장 익숙한 것들로 설명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용 거사의 의도는 크게 성공했다. 실제로 불교의 교의와 중국관습이 상충된 것을 해결하려는 전적들은 상당수가 <이후론>을 직접 인용하거나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후론>은 '격의(格義)불교'의 개혁자라 할 수 있다. '격의'란 '의미를 헤아려 바로잡고 맞춘다'는 뜻이다. 불교를 중국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유·도 등 중국 고유 사상으로부터 유사개념이나 용어를 빌려 설명하는 방법을 가리킨다. 예컨대 장님과 귀머거리에게 불법의 만다라와 법음을 아무리 보여주고 들려줘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불교를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했다.

비록 모용 거사의 자세한 행적은 전해지지 않지만 그가 찬술한 <모자이후론>은 '아하지방'에 젖은 중국인들에게 외래 종교인 불교가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거사의 공로는 이와 관련된 저자들 중 최초다. 특히 이후 남북조시기에 전개된 '격의불교'의 방법을 먼저 보인 것은 더 큰 가치로 평가된다.

명·청대에 이르러 중국불교는 내부적으로는 '제종일치(諸宗一致)'를 표방하고 외부적으로는 불·유·도 '삼교일치(三教一致)'의 길을 걸게 된다. 이러한 노정은 이미 거사의 <이후론>으로부터 발원된 것이며 '삼교일치'의 중심에는 불법의 진제(眞諦)가 핵심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 동국대 불문화연구원 김진우 연구교수

2008년 戊子年 새해 새날 자기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 원효종 경북남교구 총무원

총무원장 복원사 영문  
교무국장 대 각 사 대각  
포교국장 송 학 사 도완  
규정국장 연 화 암 일도  
사회국장 토함정사 대호

중도일동

■ 총무원 : 경북 경주시 현곡면 내대리 875 원효불학원 어림산 복원사 054)745-3646

수행으로 아는 나의 삼세(三世) 수행의 새로운 패러다임

나를 알면 살기 쉽다

스라마나 석호 지음  
연화 퍼블 | 신국판 양장본 360p  
수행도구 범주포함 정가 5만원

팔만 대장경 경집부 점찰산악업 보경을 이 시대의 감각으로 풀어 놓은 수행지침서로서 부제는 <법주행비기>, 자신이 지은 업력으로 발동하는 인생의 고락길흉을 <법주>라는 수행도구와 우주에 작용하는 인연의 힘으로 점찰하여 파악할 수 있음은 물론, 대처방법까지 밝혀놓음으로써 수행과 현실적 성공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끼던 불자들에게 수행과 삶이 둘이 아님을 보여 준다.

생각, 말, 행동에 의해 각각 0수로부터 108수에 이르는 숫자의 행로 중에서 자기 인연수가 결정되어지며, 수행의 향상 정도에 따라 인연수가 변화하게 된다.

독자는 이 수행법에 의해 자신의 전생 내지 현재, 미래 모습의 파악은 물론, 매 순간 닦이는 인생진로 및 인간관계의 성태까지도 점검할 수 있다. 나아가서는 수행하는 세상, 모두가 부처 되는 세상을 희구하는 수도승인 저자의 서원이 가슴 편하게 느껴지는 책이다.

- 불서총판 운주사 -

온라인 <농협> 1343-02-005446 예금주 이성환

구입처 : 도서출판 연화 053) 253-1923 익일택배

다들 카레가 스님이 만든 원주생식을 쳐보세요!

자연의 건강함을 담았습니다! 원주스님의 정성을 담았습니다!

스님이 만든 원주생식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준비하세요!

원주생식 2개월분 80,000원	원주발아생식 2개월분 80,000원	원주참생식 2개월분 90,000원
원주흑생식 2개월분 90,000원	히말라야 석청 1kg 300,000원	원주장류 2개월분 20,000원

무상사 (053)958-5921  
우체국 703314-01-001873 (예금주 : 무상사)  
※ 수입금 전액은 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포교기금으로 쓰입니다.

재단법인 21C 한국불교조계종 등록안내

- 우주의 섭리는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 부처님의 진리는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자비로 연꽃입니다.
- 향종은 청의요, 청조입니다.
- 종단에 입종하는 진흙속에 연꽃 한송이가 아름답게 피는 것입니다.
- 종단에 등록하시고, 법적·행정적 보호를 받으십시오

총무원장 서보현 황강

구비서류

- 사진 5매 (반명함판 3×4)
- 주민등록등본 1통
- 이력서 1통
- 혜택 : 사담등록증 발급, 임명장 수여, 승려증 발급

\*기타 자세한 문의로는 총무원으로 하십시오.

총무원장 서보현

- 학력 : 동국대학교 승가학과 수료, 부산 경성대학 경영과 졸업,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사회복식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문학석사 취득,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23대 총학생회장 피선, 인하대학교 대학원 철학박사 진전
- 약력 : 1961년 승려사 출가, 광주 미곡서 교무역임, 설악산 신봉사 교무역임, 팔공산 동화사 교무역임, 두원산 대흥사 교무역임, (원) 재단법인 21C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 경력 : 흥원암, 봉선암 중건 및 범종불사 회향, 팔공산 동화사 통일대불 불사회향, 원풍 유가사 범종각 범종불사 회향, 조계종 9대, 10대 중앙종회 의원
- 특혜 : AIG순해보험 현대해상(우) 하이라이프80평생 의료보험

재단법인 21C 한국불교 조계종 총무원  
인천 계양구 오류동 155-2번지  
전화 032)518-1588 / 032)554-1080